

# 새 맞춤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3월부터 시행되는 새 한글맞춤법과 표준어의 특징

이민우

연합통신 논설위원 · 국어심의위원

무슨 말이 어떻게 바뀌나-지난해 1월 확정고시된 새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3월 시행을 맞아, 이렇게 걱정반 궁금중반인 국어생활인들이 적지 않다.

새 맞춤법은 전체적으로 보아 큰 변화는 없다고 하겠으나 빈도 높게 쓰이는 말들이 더러 바뀌어 쓰이게 되었다. 표준어의 경우, 표준어 사정의 원칙과 표준발음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을 뿐 이에 따라 사정된 새 표준어는 넉넉잡아 9백개에 지나지 않고, 새로 사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태가 바뀌게 된 것도 아니므로 변화의 폭이 걱정할 정도는 안된다.

대체로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과 일치하거나 적기 쉽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고쳐졌기 때문에 기억-적용의 부담이 흔히 생각하듯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달라지는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린다.

### 대폭 현실화 · 간소화한 맞춤법

먼저, '이요'는 종결형에서는 '이오' 즉 '오'풀이 된다. '아니오'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하오, 하시오'와 끝의 형태가 같아진다.

주의할 것은 '읽어요. 좋지요' 등의 '요'인데, 이때의 '요'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이므로 앞서의 '오'풀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반가워요"처럼 어색하게 쓰이던 말이 '반가워'로 현실화된다. '가까워, 외로워' 등도 마찬가지다. ▢변칙에서 '▢이' '▢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굽다, 둥다'만은 종래대로 '고와, 도와'이다(단음절어간).

'꿀꾸리, 살사리' 등 시각적으로나 의미과 악상오로나 또는 '-이'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서나 뭔가 마땅찮았던 어형이 '꿀꿀이, 살살이'로 그 모습이 분명해진다. '더필이, 빼죽이, 푸석이, 훌쭉이' 따위도 그와 같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기로 한 것이다.

위의 '-이'는 사람을 나타내지만 전성부사에서는 '-이'(또는 '-히')풀이 일반적인 어형인데, 이에 맞추어 '더우기, 일찌기'가 '더욱이, 일찍이'로 바뀐다. 각기 '더욱'과 '일찍'에 '-이'가 붙은 형태로 잡은 것이다.

말뭉치 사잇어에도 단언이 내려져 한자어 합성어에서는 '긋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라는 대역섯 낱말만 사잇어를 적게 되었다. 따라서 '넋'과 '교'가 '넋'과 '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넋'과 '교'가 '넋'과 '교'로 바뀌는 것이다.

### 새 맞춤법과 표준어는 대체로

우리가 실제 쓰는 말과 일치시키거나

적기 쉽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고쳐졌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여길 일은 아니다.

가능한 한 언어현실을 좇아

간소화 · 현실화했으며,

특히 복수표준어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어형은 인정되지 않는다. '긋등, 시냇물' 같은 순우리말이나 '긋병, 찻잔' 등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일 경우에만 사잇어를 붙인다.

'적지 않다'가 줄어들면 어형상 '적잖다', '만만치 않다'는 '만만찮다'가 되지만 편의와 실용성에 맞추어 '-잖-' '-찮-'으로 간소화된다.

이러한 간소화는 동사나 형용사에서 '하'라는 말이 줄어들 때도 적용된다. 즉 '간편하게'는 '간편케', '연구하도록'은 '연구토록', '가(可)하다'는 '가타'로 줄어들 수 있다. 종래에는 '간편하게'처럼 사잇어를 넣게 되어 있었으나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꺼져 가다' '막아 내다' '도와 드리다' '깨뜨려 버리다' 등의 '가다, 내다, 드리다, 버리다' 같은 말을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쓰도 허용한다. '올 듯하다' '할 만하다' '될 법하다' '갈 성싶다' '아는 척하다'에서의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 척하다'도 마찬가지로 앞말에 붙여쓸 수 있다.

성과 이름(또는 호)은 붙여써 예컨대 '최치원, 서화담'이 된다. 이에 덧붙는 '씨, 님' 따위의 호칭어나 기타의 명칭, 직명 등은 모두 띄어쓴다.

그밖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쓰도 허용한다. '서울 덕수 국민 학교' '중거리 탄도 유도탄' 같은 산만하고 불편한 표기 대신 '서울 덕수국민학교' '중거리탄도유도탄'으로 모아 적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사전에 따라 '솔직히/솔직이'로 갈려 나와 혼란을 빚던 것이 '솔직히'로 통일된



새 맞춤법은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사용빈도가 잦은 일부 낱말들이 언어현실에 맞게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국어생활인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익힐 수가 있다.

다. '이/히' 양쪽으로 소리날 경우 '히'로만 적도록 되었다.

'(으)르' 계통의 어미는 의문을 나타내는 말만 된소리로 적고(할까, 할꼬, 할쏘나) 나머지는 예사소리로만 적는다. 따라서 '금방 갈게'의 '갈게'는 '갈게'가 된다.

'일꾼, 장꾼'이라고 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말들이 '일꾼, 장꾼'으로 분명해진다. '나뭇꾼, 지게꾼'도 '나무꾼, 지게꾼'이 된다.

다분히 작위적인 구별을 해오던 '맞추다/마추다'와 '뺨치다/뺨치다'가 '맞추다'와 '뺨치다' 하나로만 쓰인다.

용법이 일부 분명찮았던 '부치다/붙이다'의 구별을 확실하게 종래 '회부하다, 부(附)하다'의 뜻으로 쓰이던 '붙이다'를 '부치다'로 바꾸었다. 그래서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처럼 쓰이게 된다.

어형과 구조가 괴팍스러운 '-는 이보다' '-(으)르 이만큼'이 '-느니보다' '-(으)리만큼'이라는 하나의 어미로 처리된다. 다만 그 '이'가 사람을 말하는 경우에는 관형사형+의존명사+조사의 구조 그대로(즉 종전대로) 적는다.

'가정란/가정난(欄)' 어느 쪽으로도 이론상 가능했던 것이 '가정란'으로 통일된다. '欄'은 독립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만 말에 붙을 경우 접미사가 되는 것으로 본다. '陵'도 마찬가지로 만말에 붙으면 '릉'이 된다.

외자 이름을 가진 인명을 두음법칙만 고집해서 적으면 이상해지는 때가 흔하다. '崔麟'을 '최린'이라고 적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에는 본음대로 '최린'이라고 적고 읽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원칙은 '최린'임). '신림, 채륜, 하륜'도 마찬가지다. 한데 반드시 외자 이름인 경우에만 본음 적기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朴利道'는 '박리도'가 아니라 여전히 '박이도'여야 옳다.

사전이나 인덱스 등에서 낱말을 배열하는 순서(자모순)가 정해졌다. 즉 된소리는 예사소리 다음에 놓여야 한다. 예를 들면 ㄱ줄이 다 끝나고 ㄴ줄이 온다(가게-고기-기러기-까치). 어중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다(가장-가족-가지-가짜).

### 표준말도 언어현실에 충실 기해

'끄나불, 나팔꽃'이 현실음을 따라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 즉 '끄나풀, 나팔꽃'으로 바뀐다. '간막이, 빈 간, 방 한칸'도 '간'이 되지만 '초가삼간, 뒷간'만은 그대로 '간'이다.

'가을같이, 거시키, 푼침'은 거꾸로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취해 '가을갈이, 거시기, 분침'으로 바뀐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강남콩, 사글세). 그러나 어원에 더 가깝게 쓰이는 말은 그것을 취한다(갈비, 굴젓, 밀뜨리다).

'돌/똥'은 의미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돌'로만 쓴다. '돌썰/두썰' '셋썰/세썰' '넋썰/네

# 조선조 詩歌문학의 통시적 맥락

「조선초기 樂章문학연구」

조규익

송실대 교수 · 국문학



**조선초기 악장문학의 실체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고려문학과 조선문학의 접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조선초기 악장의 위상이 밝혀지지 않는 한 조선조 詩歌史(범위를 넓힌다면 조선조 문학사)가 완벽하게 기술될 수 없으며 고려문학과 조선문학의 접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인데,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려는 작업을 근래 구상해 왔고 상당 부분은 이미 진행중에 있다.

필자가 악장을 조선조 문학사의 출발로 삼으려는 이유는 대충 두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중국문학의 수용으로 이루어진 본격 한문학에 대하여 악장문학은 기존 한문체의 변용이나 국문을 표기수단으로 하는 첫 단계의 문학적 실현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적 고정적 형태로 지속되는 전자에 비해, 후자에 문학사적 의미의 중점이 놓인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조 시가문학의 양상을 고정형과 변이형의 이원적 구조로 파악할 때, 문헌에 드러난 숫자만으로는 전자가 후자를 훨씬 능가하지만, '문예미의식의 변화에 따른 장르적 변이'의 징표로는 후자가 훨씬 더 시사적이다. 둘째는, 작자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및 수용 배경의 역사적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표면적이긴 하나, 조선의 건국은 이념적 변혁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쿠데타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들이 이룩한 쿠데타도 민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상층부의 소수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던 만큼, 주체세력의 행위 일체를 합리화할 만한 명분의 제시와 홍보가 필요했고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주체세력이 지니고 있던 학문적·문학적 소양은 이러한 목적 수행에 적절히 활용되었는 바, 그 중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 '민중에 대한 洗腦'로 볼 수 있는 각종 악장의 제작과 유포였다. 물론 악장 가운데서도 典禮的인

작품들은 주로 중국을 통하여 받아들인 양식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바 '고정형'과 같은 차원의 것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여타의 작품들은 조선초기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핵심세력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이룩된 것들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를 전제로 할 경우, 조선초기 악장을 성립시킨 대표적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문헌적 검토나 작품들의 구조적 특질 및 여타 장르들과의 공시적·통시적 연관성 등은 논리전개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의 핵심이다. 또한 창작 및 수용의 배경으로서 천착되어야 할 것이 '정치·사회적 배경'을 포함하여 '목적문학론의 대두'·'선행장르의 수용 양상' 등이다. 국문학사상 처음으로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갖춘 목적문학론이 악장의 창작에 즈음하여 개진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共同善의 고양이라는 목적의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창작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무엇을 표본으로 해야 하는가를 그 이전의 어느 문학론보다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단절하고자 애쓰던 전 시대의 가요 유산일망정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발전적으로 답습했다는 사실로부터 목적의식 달성이라는 대전제와 그에 따른 선행장르의 수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 필자가 대표적 작가로 꼽고 있는

鄭道傳·河崙·權近·卞季良·崔龜 등의 작품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악장문학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조선조의 본격 시가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일 것이며, 그와 함께 시가문학의 통시적 맥락 역시 구체화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째'도 마찬가지로 '둘째, 셋째, 넷째'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십단위 이하에서는 '두째'로 쓴다(열두째).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되(수꿩, 수놈, 수소, 수컷) '숫양, 숫염소, 숫쥐'만은 현저한 발음현실을 좇아 '숫-'으로 한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강충강충, -둥이, 오뚝이, 주추). '-내기, 냄비, 동덩이치다'는 '-나기, 냄비, 동덩이치다'란 형태가 동화현상으로 소리가 바뀐 것인데, 이런 발음의 변화는 표준발음에서는 인정치 않되 위의 세 단어만은 소리가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나 '아지랑이'는 이 형태를 표준어로 한다.

'-장이'가 붙는 말 가운데 '匠' 즉 기술자란 뜻이 없는 말은 소리대로 '-쟁이'를 취한다(뿔쟁이, 소금쟁이).

종래 불필요하게 복잡한 형태를 표준어로 하던 '괴팍하다/괴팍하다'는 '괴팍하다'로, '-구면'은 '-구면'으로 표준어를 바꾼다. '미루나무, 으레, 케케묵다. 허우대, 허우적허우적'도 마찬가지로 한다.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에 따라 '-구료'는 '-구려', '깍쟁이'는 '깍쟁이', '미시'는 '미수'(미숫가루), '상치'는 '상추', '주착'은 '주책'(주책없다), '지리하다'는 '지루하다' 그리고 '호루루기'는 '호루라기'로 바뀐다.

사전편찬자들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던 '웃-'과 '윗-'은 '윗-'으로 통일한다(윗넓이, 윗니, 윗목, 윗자리).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맞춤법에서의 사이시옷 적용과 흡사하게 시옷이 없는 '위-'로 한다(위턱, 위팔). 그러나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 형태를 취한다(웃돈, 웃어른, 웃웃).

한자 '旬'는 '귀굴, 글귀'를 제외하곤 '구'로 통일한다(구절, 경구, 시구, 인용구, 절구).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을, 본말이 더 큰 세력으로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따리, 무, 생쥐'(이상 준말)와 '귀이개, 뒤웅박' 등이 된다. 그리고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 둘다 표준어로 삼는다(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오누이/오누/오누, 외우다/외다). 주의할 것은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의 활용이다. 이

경우 모음이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X머문, 서둔, 서툰).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널리 쓰이는 쪽을 표준어로 삼는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습니다/습니다'에서 '습니다'만 인정하는 것이다. '천장/천정'은 '천장'만 취한다('天井不知'는 역시 '천정부지'입).

이번 새 표준어는 복수표준어를 크게 늘린 것이 또하나의 특징인데,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허용하는 것과 양쪽을 모두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의 두 방식이 있다. 전자엔 '네/예, 쇠-/소-, 괴다/고이다' 따위가 있고 후자엔 '가물/가물, 가없다/가없다, 꼬리별/살별, 넝쿨/덩굴, 땅콩/호콩, 만큼/만치, 바른/오른(右), 서럽다/싫다, 신/신발, 여태/입때, 우레/천둥, 좀처럼/좀체, 칩/체' 등 제법 많은 편이다.

그밖에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되 원래의 표준어도 인정하기로 했으며(명계/우렁헝이, 물방개/선두리), 표준어이던 단어가 잘 안 쓰이는 것은 방언을 표준어로 대체했다(귀밑머리, 생인손, 역겹다, 코주부).

또 사실상 死語가 된 것은 현대어로 과감히 바꾸었다. 이로써 '설겅다, 설겅이' 대신 '설거지하다, 설거지'가, '애답다' 대신 '애달프다'가 표준어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끝으로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것 가운데 세력이 큰 어느 한 쪽을 표준어로 삼는 등 새 표준어는 언어현실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낙 제한된 지면이므로 좀더 자세하고 폭넓게 언급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맞춤법과 표준어규정 전문을 구해 통독하기 바랄 뿐이다.

## 출판제널

###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